

[종합·해설]

■ 與 ‘오픈 프라이머리’ 확정... 한나라에 불똥?
(개방형 국민경선)

‘경선 방식’ 뇌관에 불 붙이나

박근혜 “원칙·룰 함부로 안 바꾼다” 반대
이명박 “승리위해 신중 검토” 가능성 열어둬

열린우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위 인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제)가 한나라당 경선 과정의 최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논란이 결국 경선 공정성 시비와 경선 불복, 후보 단일화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이 전 시장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당내 지지도가 높은 박 전 대표는 현

“(당내 경선 논의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승리를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 도입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을 남겼다. 또 이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대선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란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선후보 단일화가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그것은 단일화가 안 되기를 바라는 측에서 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민심대장정 중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 전 지사는 평소 “국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게 좋다”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그러나 손 전 지사의 한 측근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본질을 바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거리를 뒀다. 그는 “여의도 바다에서 싸우는 정치에서 출마선언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고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의 대권대전 발언을 짜짜야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표 지원을 받은 강재섭 당 대표가 최근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를 외치는가 하면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경선 방식 결정은 범여권 통합만큼 추후 이뤄질 정계개편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경선 방식 선정을 놓고 분열하게 된다면 정계개편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범여권 대통합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2일 오전 서대문구 봉원동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 등 전·현직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신상우 KBO 총재, 유재건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문희상 의원, 이용희 국회 부의장. /연합뉴스

“범여권 대통합 노대통령은 가만 있어야”

정 고문의 발언은 여권내 친노세력이 자신의 범여권 대통합론을 노대통령을 배제하지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반발하는 데 대한 해명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노대통령을 어떻게 모실 것이냐, 예우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뿐 (탈당 문제는) 핵심쟁점이 아니고, 큰 변수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돕는다고 크게 도울 수도 없고, 반대한다고 반대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 탈당 불가론자인 문희상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문 의원도 ‘선배와 제 생각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범여권 대통합의 방법론과 관련,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 김근태 의장, 정동영 전 의장, 강금실 전 법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오픈프라이머리로 경쟁해 정권을 재창출하면 좋고, 적어도 대안세력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상한 공천’

신안군수 후보 공천... 본인은 불출마 표명

해남·진도 후보 설정호씨
화순군수 후보 임근욱씨



한나라당이 2일 10·25 전남지역 재·보선 후보 3명을 확정 발표했으나 일부 후보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졸속 공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 진도 출신으로 호남 교육신문사 대표를 지낸 설정호 전남도당 홍보위원장을 확정했다. 또한 신안군수 보궐선거 후보에는 임근욱 화순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신안군수 재선거 후보로는 김영식 전 전남도당 조직부장을 각각 공천했다. 그러나 신안군수 후보로 공천된 김 전 부장은 2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중앙당의 출마 권유에 고민을 했으나 사실상 마음을 접었다. 불출마하기로 가다름 잡았다”고 밝혔

다. 김씨는 “개인적으로는 준비가 덜 됐는데 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공천자로 확정 발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에서 5월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민심을 살펴보고 당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상 ‘징벌’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김씨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호식기자 who@kwangju.co.kr

“범여권 통합 개혁세력이 DJ·노대통령 자산·부채 승계를”

전정배 전 법무장관



열린우리당 소속 전정배 전 법무장관(사진)은 2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노무현 대통령이 승계했듯이 DJ와 노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모교인 전남 목포고등학교에서 ‘선배 초청 특강’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 배제를 전제로한 범여권 통합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 그 시대의 부채라 하더라도 민생회합과 개혁 세력이 함께 책임지고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권 도전과 관련, “선공후사(先公後私)”다. 위기를 맞고있는 민생회합, 개혁세력을 결집시켜 생

산적 정치를 이루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공적 임무를 완수한 뒤 추후에 적절할 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당이 정권 창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정권 재창출의 기회가 아직도 있고 자신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어떤 정치세력에 (정권을) 맡겨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전 장관은 이날부터 4일까지 목포지역 전 ‘노사모’ 간부, 우리당 관계자 등과 만나 정치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노대통령 左, 김근태·손학규 中, 박근혜·이명박 右”

김효석의원 ‘정치권 3그룹 분류’ 눈길



민주당 김효석 의원(장성·곡성·담양·사진)이 최근의 정계개편 논란과 관련, “경유지와 목적이 분명한 노선의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 정치권의 정계개편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치권을 보수와 진보, 중도 등 3가지 그룹으로 분류, 눈길을 끌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계개편 하면 사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기가 쉽다”며 “그러나 정계개편에 앞서 정책을 준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런 작업은 이념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권은 3개 정도의 그릇에 담겨질 수 있다”며 “우선 박근혜, 이명박 등 정통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맨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념적으로 가장 왼쪽에 위치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마지막으로는 양쪽의 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세력으로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정세균, 이강래, 김부겸, 임종석 의원, 한나라당의 원희룡, 임태희 의원,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을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재보선 후보 공천
우리당, 10일까지 확정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치

러질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남동구청장을 지낸 박우섭(50) 당의장 비서실 부실장을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우리당은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신안군수 등 기초단체장 4곳, 광

공무원, 농업직, 경찰직, 소방직, 전남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various jobs and a study center.

마사이족 워킹슈즈. Advertisement for shoes with a list of features and prices.

www.HSELL.co.kr. Advertisement for a home goods store.

35년 전통의 복교당 한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독송 오가리 식용. Advertisement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oducts.